

2021년 1월 3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편 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 ◎ 찬 송 / 370장(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 3장 5절(신약p.335)

### 2장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3장

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 말씀선포 / 바울의 간절한 부탁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성도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

로 거룩하게 하신 형제자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믿음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문 13~1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바울 역시 환란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어려움 앞에 놓인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명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바울은 짧은 시간 약 두 주간의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며 말씀으로 가르쳤고, 이후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지혜를 얻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사도바울은 많은 환란 가운데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바울의 가르침도 시간이 흐르고, 또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더욱 강력해지는 환란 속에서 점점 망각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흑사라도 교회가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함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온갖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많은 환란 속에서 점점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역자와 교사들, 직분자와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배운 진리의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욱 굳게 믿고 붙잡아 행함으로 이 시대에 참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서로를 위해 도고기도를 해야 합니다.

- 바울은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 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사요 교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말씀

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나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일은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하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와 교사, 직분자와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사도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부당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3장 2~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고 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로 인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악한 자들을 이용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며 고난주어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탄의 간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20절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또한 함께 동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헌신자, 봉사자들을 위해 더욱 도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기 위해 기도의 뜨거운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뜨거운 가마에서 불을 지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 도고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291장(통413)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 폐 회 / 주기도문